

복음통일을 위한 기도 자료 Vol. 3.

정세 이야기

작년 2023년 1월 17일-18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평양문화어보호법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법이 계속적으로 북한 주님을 공개 재판, 강제 노동형에 처해지게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이 청소년이라는 것입니다. 한 재판에서는 17명의 청소년이 불법적인 비디오 시청 및 남한식 언어 사용으로 기소되어 한 명은 10년 강제 노동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법에는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습니다.

평양문화어보호법은 5장 65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대 최악의 법으로도 불리울 정도로 전체주의 통치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당국이 검열한 문화어만 일상 회화에서 사용하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이미 북한 당국은 지침을 전 북한 주민에게 주었습니다.

“괴뢰 문화의 졸렬성, 부패성을 똑바로 인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짜고들 것. 청년들 속에서 친인척 관계가 없는데도 '오빠', '동생'이라는 괴뢰 말투를 쓰면서 불건전한 사상을 유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할 것”

대한민국 기자들 사이에서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은 “오빠 금지법”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행하는 체제 선동적인 문화보다는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더 매력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여겨져 북한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대한민국을 ‘불순한’ 외부 세력이고 ‘평양’은 김정은이 원하는 사상만을 상징화하는 세뇌의 양상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자신의 문화만을 순수하게 보고 남한의 문화는 불결한 문화로 세뇌합니다. 북한은 계속 조작된 순수를 추구합니다. 남북 분단의 역사를 겪어오면서 남북한 정부는 자국의 국민에게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계속 심어왔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 모두에게 동일 양상이 존재합니다. 다른 점은 북한은 그것을 통해서 자유를 빼앗고 인권을 억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북한 것을 순수하고 남한 것은 불순하게 세뇌하여 주민의 자유를 빼앗고 인권을 억압하는 것 자체로 스,스스로 양심에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제목

하나님! 북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그들 모두가 스스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추구하는 순수함이 거짓이요 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스스로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사함을 얻는 성결한 백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모든 성도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교회의 중직자가 앞장서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하여 더 성결한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가해자로부터 피해받은 사람이기에 스스로 순수하다 생각하지 않고 가해자를 미워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통일선교기관의 특별기도 제목

말씀 나눔

본문: 요한1서 1장 8절-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단인 영지주의자는 영지(Gnosis)를 얻으면 영혼의 정결함에 이른 자에게는 육체적인 죄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기본 자세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삶에서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한 상대방이 생깁니다. 그 상대방을 묘사하는 것은 추하고 악하게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은 순수함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준 상대방에게 큰 비난을 퍼붓고 악에 폭 젖어 있는 자신은 무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 모두에게 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서로에게 추하고 악한 비난을 퍼부으면서도 본인은 덜 추하고 덜 악하다고 속삭임을 듣습니다. 죄인에게 자신은 순수하다고 속삭이는 제3자가 존재합니다. 그 3자의 속삭임은 오늘 본문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거칠게 비난할수록 그 이면에 자신은 선함이 있다는 공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직자가 되는 분도 있고 향존직 직분도 받게 됩니다. 나는 목회자이기에 모든 목회 활동이 성결하다고 순수함의 조작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유혹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평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바울을 살펴봅시다.

주님도 공생애를 사시면서 늘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일을 생애 마지막 날 겻세마네에서까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39-46)

공생애 마지막 밤조차도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로 가신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됩시다. 결코 자신은 중직을 맡아 봉사하는 자로서 스스로 순수하게 생각하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합시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바

울이 디모데전서를 쓴 시기는 그의 인생에 마지막 시기입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의 마지막 시기에 와서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교회에서 직분을 중하게 맡을수록 우리는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됩니다.

북한은 북한 지도자가 만든 사상과 이념으로 본인은 선하고 남한을 악으로 봅니다. 북한 정권은 그들이 만든 사상을 통해서 자신들은 정의롭고 합법적인 선의 표상으로 인식합니다. 북한은 남한과 남한의 동맹국들을 적대적이고 악한 세력으로 묘사합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만 순수한 것이라고 북한 주민들을 세뇌합니다. 남한의 문화는 불결한 것으로 세뇌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북한 지도자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북한 지도자 속에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순수하게 생각하는 악취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북한 지도자가 진리를 알고 회개하고 진리로 인하여 자유를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심령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 모든 불의에 대해서 속죄함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학적 관점

미로슬라브 볼프는 마조리 수코키(Marjorie Suchocki) 「폭력에로의 타락」(The Fall to Violence, 동연출판사)을 인용합니다. “폭력의 본성 자체가 희생자와 가해자를 뒤엎히게 한다.”¹⁾고 말합니다. 폭력은 희생자의 정신이 닳아 걸리게 하며, 방어적인 반응의 형태로 폭력적인 행동을 촉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순수함을 앗아갑니다.²⁾ 조작된 순수를 보면 중간에 폭력은 희생자의 정신이 닳아 걸리게 하며 방어적인 반응의 형태로 폭력적인 행동을 촉발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작된 순수로 봅니다. 즉 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보복을 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정당한 것이라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작된 순수입니다. **피해자가 보복을 했습니다.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것은 조작된 순수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순전히 무죄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피해자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말만 하는 것에는 무엇인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

1)미로슬라브 볼프,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12), 120 재인용.

2) 위의 책, 123.

의 마음 안에 가해자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의 악취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묻습니다. 세상은 유죄한 가해자와 무죄한 피해자로 모이지만 양쪽 모두 상대에게 부과된 작은 증오, 상상되는 잔인한 보복성, 그 타자를 생각할 때에 피어나는 미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치유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볼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참으로 무죄한 희생자이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메시아와 그분이 지켜 내신 모든 것의 이름으로, 배타적인 도덕적 양극성-이곳 우리 편은 ‘의로운 사람’ ‘순수한 사람’ ‘무죄한 사람’ ‘참된 사람’ ‘선한 사람들’이며, 저쪽 상대편은 ‘불의한 사람’ ‘타락한 사람’ ‘유죄한 사람’ ‘거짓말쟁이’ ‘악한 사람들’이라는-을 중심으로 구축된 세상이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져 있음을 폭로해야 하며, 받을 자격 없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경륜이 도덕적 보상의 경륜보다 우월함을 깨달음으로써 정의와 불의, 선과 악, 무죄와 죄책, 순수와 타락, 진리와 거짓이 엇갈리고 교차하는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누구도 무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 개인의 행위는 비참하고 심지어 악마적이기까지 하지만, 어느 누구도 포용하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화해의 사역을 추진해야 한다.”³⁾

우리 편은 순수하고 상대편은 불의하다는 거짓된 순수함에서 깨어나서 세상을 변혁시켜야 한다고 볼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동시에 “지옥의 자식”(마23:15)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지옥의 자녀”를 끌어안고자 하시는 하나님⁴⁾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 위의 책, 129-130.

4) 위의 책, 131.